[New Look] 김가람

PEOPLE

2016 / 11 / 01

채연

‘대중’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김가람



<아젠다 헤어 살롱> 헤어컷 퍼포먼스 2016

김가람은 대중의 관심사를 관찰하며 그들의 발언을 자신의 퍼포먼스 미디어아트 설치작품 등에 기록한다. <아젠다 헤어 살롱>(2014~16)은 시위자들의 삭발식 모습을 차용한 무료 헤어컷 퍼포먼스. 관객은 현장에서 작가가 준비한 다양한 ‘슬로건 가운’을 골라 입고, 해당 슬로건에 공감하는 만큼의 머리 길이를 자르게 된다. ‘헤어컷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작가가 머리를 직접 다듬어 주며 관객이 사회 문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유도한다.



<Virgin Candy> 2013

그달의 가장 '핫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음원을 매달 제작하는 <SOUND PROJECT>(2014~16)도 있다. 작가가 '4ROSE'로 명명한 기계음이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을 빠르게 읽는 랩에, 클래식이나 EDM처럼 익숙하거나 트렌디한 MR을 조합한 1분 내외의 곡을 매달 발매한다.



<4ROSE 정규2집 앨범 'UPDATE'> 2016



KT&G상상마당갤러리 개인전<UPDATE>(10. 27~11. 28)-에 설치된 <#SELSTAR>(2016)는 인스타그램 '셀피(self-ie)' 열풍을 반영했다. 파우더룸처럼 노란 전구를 단 '#SEL'-과 유리거울로 만든 'STAR' 모양의 조형물 뒤편에는 "마음껏 발라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화장품을 종류별로 마련, 관객이

전시장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데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 것.
전시장에는 인기 뷰티 유튜버(Youtuber) '연두콩'의 하루를
촬영한 영상 <#SELSTAR×연두콩>(2016)도 더해졌다.



<#SELSTAR> 2016



일반인이 사회 이슈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고, 인증샷이나
영상으로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세태를 담아낸 그의 작품은
'대중'으로 묶인 개개인이 '주인공'이 되고픈 심리를 노출한다.



김가람 / 1984년 서울 출생. 이화여대 회화판화(서양화)과 졸업 및 런던 첼시예술대학 순수미술 석사과정 졸업. KT&G-상상마당갤러리(2016), 코너아트스페이스(2016), 뒤셀도르프 필름베르크슈타트(2016), 정다방프로젝트(2015)에서 개인전 개최. <-Close Relation>(KT&G상상마당갤러리 2016), <60sec ART>(사비나미술관 2016), <경험의공기 Ex-AIR>(고양레지던시 2015) 등의 단체전 참여. 고양레지던시(2015) 입주작가. 앨리스온 어워드 한국 신진 뉴미디어아티스트 부문(2014) 선정작가.